

儲承殿重修工事와 畫員金明國

申 榮 勳

一.

山水와 人物畫로 이름 높던 畫員 金明國(命國·鳴國)이 昌慶宮의 儲承殿 重修工事(仁祖 26年度)에 참가하고 있음이 儲承殿儀軌(茂朱赤裳山史庫所藏 總督府寄贈 昌慶宮藏書閣藏本이라 表識되어 있음)에 보이고 있어 흥미 있다.

建築工事に 畫員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이렇다 할 先學들의 論攷가 없었던 것 같으므로 儲承殿工事に 畫員 金明國이 참여하였다는 記錄은 저러한 關係問題를 解得할 한 資料가 생겼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가 있다.

繪畫史的인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할 畫員을 建築分野에서 취급하려는 일은 몹시 조심스러운 일이고 知見의 未洽으로 자칫 잘못되기 怯경이겠으나 既往에 金明國이 建築工事的 한 一員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공사관의 한 인물로 보고 建築史 研究의 對象人物로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

畫員으로서 建築에 참여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요즈음 設計圖라고 부르는 建物 造營計劃圖를 그리는 技術者로서의 일이고 둘째는 建物の 莊嚴을 위한 施紋彩畫의 圖案裝飾 技術工으로서의 일이다. 金明國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것을 담당하였는지는 儀軌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推論을 낳게하고 있다. 儲承殿儀軌의 記錄과 畫員 金明國을 이야기한 文獻들을 一瞥하여야 비로서 그 윤곽이 들어날 것 같다. 이야기의 편의에 좇아 儲承殿부터 살펴보고 그 儀軌의 記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二.

儲承殿은 昌慶宮 建陽門 밖에 있던 殿閣으로 「舊求賢殿廣延亭之基 前有蓮池」한 것이고 「成宗 十七年丙午 改稱春宮」이라 하였던 것이 「仁祖元年癸亥(1623年) 入於延燒」되므로 「二十五年 丁亥(1647年) 撤仁慶宮移構重修」하였고 「肅宗 九年癸亥 十二月 明聖王后金氏昇遐于此」 「英宗 三十二年丙子 儲承殿災」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였던 건물이었다⁽¹⁾.

여기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儀軌는 仁祖元年(1623年)에 燒失된 것을 仁祖 25年(1647年)에 仁慶宮의 殿閣을 뜯어 옮겨다 지은 내용을 기록한 重修工事的 報告書이다.

儀軌初頁에 「順治五年 正月 日 儲承殿儀軌」라 序頭하였는데 順治 5年은 仁祖 26年(1648年)으로 宮闕志의 記錄과는 1年の 差異를 보이고 있다.

(1) 宮闕志 昌慶宮志 儲承殿條

儀軌에는 이어서 工事に 從事하였던 官員들의 이름을 列記하고 있다.

提調工曹判書	李	時	防
郎廳副司直	李	聖	基
郎廳典牲署主簿	權	聖	源
監造官副司正	李	士	淑
監造官司膳寺奉事	朴		惇
監造官副司猛	姜	元	禮
監造官副司猛	李	益	基

領後部將 李 濬 明 劉 悌 審 外 11員
 美 員 玄 晉 明
 畫 員 金 明 國
 書 寫 林 時 壁
 書 吏 高 泰 壽 外 六員
 庫 直 金 得 等 二名
 使令 劉 者 斤 金 等 十名

이 사람들은 工事に 직접 參與하였던 사람이고 儀軌를 만들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儀軌를 만들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은 後尾에 따로 기록하고 있다.

畫員 金明國은 儀軌刊出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것은 아니며 工事に 직접 참여하는 一員으로서 차출되었던 것 같다.

儀軌에는 重修工事に 소요된 資料와 動員된 官員과 工匠에 支拂한 給料內譯을 소상히 적고 工事日誌와 기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工事は 仁慶宮의 한 建物을 뜯어다 옮겨 짓는 것이었으므로 新材의 治材 등에보다는 古材를 利用하여 結構하고 그것을 다듬고 치장하는데 注力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儀軌의 資材記錄도 丹青(여기서의 丹青은 繪事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建築의 丹腹을 뜻한다.) 材料의 支給 貿易 入荷에 관한 內容이 중심이 되고 있다.

多量の 丹青材料를 使用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畫員이 주동이 된 한 씨—클이 있을 것이다. 이 씨—클은 畫員 7名과 畫僧 66名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자기 「一朔二十日」 동안 일을 하였다. 畫員과 畫僧의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아 누구 누구가 종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을 代表한 것은 畫員 金明國이었던 모양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의 이름만을 明記하였던 것 같다.

三.

畫員 金明國은 이미 吳世昌氏의 「槿城書畫徵」에 의하여 널리 알려졌고 李肯翊氏의 「燃藜室記述」 등에도 記錄이 있어 유명하며 豪放한 筆致의 그림들이 遺存하고 있어 지금도 識者間에 膾炙되고 있는 著名한 사람이다.

改名命國, 子天汝 號蓮潭 一云醉翁 安山人 畫員 教授職을 歸任하였다⁽²⁾.

알려진 行跡에 대하여 「檣城書畫徵」은 各 文集을 引用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仁祖 十二年 甲戌 (1634) 李忠肅公畫像 仁祖 十四年 丙子 (1636) 通信使隨行하여 中國에 갔었다.

仁祖 14年 같은 해에 일본에 갔었고, 仁祖 二十一年 癸未 (1643) 일본에 다시 通信使를 따라 갔었다.

얼마 후에 귀국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로부터 5年 後인 仁祖 二十六年 戊子 (1648)에 儲承殿工事に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의 人物과 그림에 대하여 鄭求僑는 그의 文集인 「浣巖集」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仁祖時人也 自號蓮潭 其畫不法古而得之心 尤工人物水石 善用水墨淡彩爲之 主國神氣格 而絕不作世俗丹紛藻飾之法 以取悅人目 爲人疎放善諧謔 嗜酒能一飲數斗 其作筆 必得大醉掃酒 筆益肆, 意益融淋漓酣醺 神韻流動 蓋其得意者 多在醉後云 人有造門求畫者 必餽酒自隨 士大夫邀致其家者 亦多置酒以挾其量 然後乃有下筆 故世稱爲酒狂 而其知者愈益奇之 嘗有嶺南僧持大絹就乞冥司圖 用細布數十疋爲幣 鳴國(明國) 以布付家人曰 充酒材 使我得數月快飲 既而僧來謁 鳴國(明國)曰 汝姑去 俟我意到時爲之 如是者數四 一日痛飲至醉 遂臨綉繹思 瞪視良久 一筆掃盡 其殿宇位置 鬼物形色 森森有氣 而其倅而前者 曳而刑者 剝燒者 春磨者 率用和尚比丘而爲之 僧見之 愕然而喘曰 噫嘻公何誤我大事 鳴國(明國)箕踞而笑曰 爾徒一生惡業 是惑世誣民 則入地獄者 非爾徒而誰也 僧贖蹙曰 公何誤我大事 願以此茶毗而還我布也 鳴(明)國笑曰 爾徒欲完此 其益市酒來 吾且爲爾改之 僧市酒而至 鳴(明)國仰而復笑 乃引滿而倚酣援筆 剃者髮之 髡者髡之 緇者衲者采而易其色 頃刻而就 筆意逾新 無跡可求 寫訖投筆 復大噱引滿 僧環視嗟異曰 公誠天下神筆也 拜謝而去

중을 골려먹는 장면보다는 그가 잠깐사이에 畫面을 整理하였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있는 거리이다. 또 그럴 수 있는 그의 性品이 注目된다. 또 재미있는 說話가 있다.

金明國이 通信使따라 일본에 갔다. 그의 聲名이 온 나라에 물결치며 한 조각의 그림이라도 (얻고져 하고) 그 그림을 마치 큰 구슬을 얻은 듯 애겼다. 한 倭人이 精造한 집을 마련하고 삼간 사방 벽을 毛緞으로 도배하고 千金을 幣帛으로 하여 明國을 맞이하여 壁畫 그려 주기를 청한다. 明國이 곧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신 후 비로서 붓을 찾으니 倭人이 금가루 줍 한 주발을 내놓는다. 明國이 그것을 받아 한 입 가득 머금고 벽 네모퉁이에 골고루 뿌리며 그릇이 다 비도록 하니 倭人이 몹시 놀랍고 화가 나서 칼을 뽑았다. 明國이 크게 웃으면서 그제야 붓을 잡고 휘두르니 山水와 人物이 그려져 가는 데 그 손놀림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힘차고 살아 움직이는 듯 멋이 있으니 이는 아마 평생을 통하여 明國이 마음 먹었던대로 그린 그림이었던 모양이다.

倭人은 놀랍고 한편 기뻐서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자손에 기리 지키게 하니 그 나라의 奇觀이 되었다 한다⁽³⁾.

이토록 豪放하고 활달한 性品이고 「人物活動 筆墨渾融 百年內 恐不多得」하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人生은 不遇하였던 모양이다. 出生이나 언제 죽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만 정도이고 圖畫署의 教授

(2) 吳世昌 檣城書畫徵 卷四 宣祖項

(3) 南泰膺 聽竹畫史

職을 역임한 이외 이렇다할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다. 儲承殿工事에서도 모든 官員이 賞典의 恩典을 입는데 金明國만은 除外되었다.

畫員이 그러한 대접 밖에 받을 수 없었던 것인지 斗酒不辭의 性品 때문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金明國은 金植 金槩과 같은 때의 사람⁽⁴⁾이고 李澄과 當代의 雙壁이었다⁽⁵⁾.

李澄은 字가 子涵이고 號를 虛舟라 하고 鶴林正 慶胤의 아들이고 陽井 李瀟의 동생이며 宣祖十四年 辛巳 (1581)生이다.

같은 宣祖廟人이면 金明國이 儲承殿工事에 참가하였던 仁祖 26年은 그의 完熟期인 老年이었을 것 같다. 中國과 日本 旅行을 하면서 見聞을 넓힌 후이고 畫工에서 圖畫署의 教授로 任命받은 후이며 이름을 命國으로 改名한 후이다. 國內外로 이름을 떨치던 그가 단순한 畫工으로도 建築工事に 참여하고 賞典의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繪畫史 部面에서 보자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

畫史이기 보다는 繪史에 가까운 일을 當代 一流畫家에게 위촉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宮殿建物の 造營工事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지 畫員은 원래 그러한 또 하나의 職分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四.

畫員은 圖畫署라는 마을에 속한다. 國初에는 圖畫院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圖畫署로 改稱한 모양인데 經國大典 吏典京官職條에 「圖畫署 掌圖書 提調一員 別提一員」이라 있고 雜職條에 「圖畫署 畫員二十員 仍仕者 西班遞兒六品一 七品一 八品一」이라고 하고 職員에 「從六品 善畫一員 從七品 善繪一員 從八品 畫史一員 從九品 繪史二員」을 두었다 하고 工典 京工匠條에는 圖畫署의 匠人으로 2名の 稍貼匠이 있고 刑典諸司奴條에는 圖畫署에 差備奴 5人과 隨行員인 跟隨奴 2人이 配置되어 있다.

文獻備考(卷二百三十三)에는 圖畫署에 「提調一員 禮判例兼 其屬別提二 教授一 後減別提 前銜二十九 生從無定額」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經國大典의 繪와 畫의 區分이다. 이에 대하여 金元龍教授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特別히 畫와 繪를 區別하고 畫가 繪의 上位에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見地에서 區別되는지 確實히 알 수 없으나 康熙字典에 의하면 畫는 分畫也 界限也 등으로 彩色보다 윤곽 즉 「아우트라인」을 作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繪는 繪五彩也 雜彩也 등으로 나와 彩色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 이러한 字義를 따르다면 畫라는 것은 對象物의 形態를 線으로써 描出하는 소위 뿔뿔이라고 볼 수 있고 繪는 丹青처럼 彩色만을 위주로 하는 技術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所謂 山水畫나 人物畫 같은 것과 極徐色으로 된 幼稚한 屏風같은 것에는 이러한 畫와 繪의 區別이 있는 듯 하다고 하였다⁽⁶⁾.

儀軌에 畫員과 畫師 혹은 畫僧은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繪員 繪師 繪僧으로 적어야 옳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畫家가 建築工事に 참여하는 길은 두가지 設計參與와 粉飾裝嚴이다. 設計는 界畫라고 할 특별한 방식에 따라 그리는 그림 솜씨를 익힌 사람이 하는 것이고 粉飾裝嚴은 圖樣과 繪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적임자가 된다. 圖畫署에는 이러한 注文에

(4)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卷十四 文藝典故 畫家條

(5) 南泰膺 聽竹畫史

(6) 金元龍 李朝의 畫員 郷土서울 第十一號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具備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유명한 畫家 安堅은 「世宗 三十五年 三月 五日 庚寅」에 「新制東宮儀仗을 圖寫하고 또 大小駕儀仗 圖를 改正하여 粧潢成冊하여 新舊官이 相傳토록 하여 訛謬가 없도록 하라」는 命을 받아 界畫法에 따르는 그림을 그린 바 있다.

圖畫署의 한 구실이 이런데도 있어 大典會通에 「繕工監官員 相地官 畫員進去奉審」한다고 있다. 畫員은 地形을 量尺하여 實測圖와 地形圖를 그려 바치는 소임을 하였던 모양이다. 畫員이 일찍부터 建築工事に 참여하여 圖面을 그리는 일을 분담하여 왔던 듯 周禮의 考工記에도 그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文獻備考에 「有提調一員禮曹判書例兼」라고 判示한 것 같이 圖畫署가 禮曹에 속하는 것은 不當하고 오히려 工曹에 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丁鏞若도 圖畫署의 役割中 建築關係의 業務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을 暗示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臣謹按 周禮繪畫之事 偏見于考工記 其本冬官所掌可知故 今屬于工曹⁷⁾

當대의 著名한 畫員일지라도 職分上 畫界 혹은 丹腹作業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王室이나 宗親에 서 命하면 本人의 好不好에도 관계 없이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던 듯 하다. 앞에 소개한 李澄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麟坪大君 創駱東第 使澄施丹腹 畫土壁當其塗彩垂泣云⁸⁾

눈물이 흐름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뼈저린 치욕을 느끼면서도 단청 일에서 손을 뗄 수 없는 그들 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⁹⁾.

이들 畫員이 하는 丹腹工事的 파아트가 초를 내고 분을 먹이고 먹을 짓는 일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壁畫나 拱包壁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넓은 의미의 丹青工事 畫工이었던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었다.

圖樣·施彩는 亞流畫員이나 畫僧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중요 부분의 繪史는 一級畫員에 의 하여 그려졌을 가능성이 짙고 그들이 山水畫나 人物畫에 능하면 능할 수록 重要建物工事に 자주 동원될 확률도 높았던 것이다.

界畫하는 이는 그 솜씨 때문에, 人物畫나 山水畫하는 이도 그 솜씨 때문에 자기 設計業務나 莊嚴粉飾作業에 불려 갔을 것이다.

儲承殿工事に 畫員 金明國이 動員되어 종사하였다는 그 것은 이러한 전차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노릇이고 金明國으로는 당시 榮光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儲承殿儀軌의 內容으로 보아 金明國은 두가지 길중 後者의 일, 즉 丹腹工事的 責任者처럼 일하였던 듯 하다고 하겠다.

(7) 丁若鏞 經世遺表

(8) 李肯翊 前揭書

(9) 尹喜淳 李朝의 圖畫署雜攷 朝鮮美術史研究 所載

畫工을 단순한 工匠처럼 취급하려는 것은 너무나 일이고 畫員이 分類法에 따라 工曹에 예속시키려는 것은 科學的인긴 하나 繪畫自體에 대하여는 훨씬 苛酷한 規定이라고 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姜希顔이 「書畫賤技 流傳後世 祇以辱名目」라고 한 이야기를 引用하고 있다.

五.

儲承殿工에서 畫員과 畫僧은 다음과 같은 給料을 받았다.

畫員七名各一朔二十日 料米七石一斗五升價布十一匹二十九尺二寸

畫僧六十六名各一朔二十日料米六十二石九升價布二同二十九匹十六尺七寸이었다.

當時 價布는 升數가 5升이고 1匹의 길이는 35尺 넓이는 7寸 以上(大典續錄)이었으므로 畫員은 1朔20일에 각 사람마다 料米 1石2升과 價布1匹24尺1寸7分씩을 받아 하루에 料斗 2升4合 價布 1尺1寸 8分3厘 꼴 씩을 받았다.

畫僧은 1日 1名이 料米1升8合과 價布 1尺3寸7分씩을 받았다.

이는 당시 같은 공사에 종사하고 급료를 받았던 諸工匠과는 다음 表와 같은 관계를 가진 매우였다.

木手 石手 貫子匠보다 畫員은 料米를 6合씩 덜 받았고 畫僧은 1升2合씩을 적게 받았다. 價布는 畫員이 그들 보다 2分씩을 더 받았고 畫僧은 2寸1分씩 많이 받았다.

經國大典에 正布1匹은 常布2匹에 준하고 常布1匹은 楮貨 20張에 당하며 楮貨1張은 米1升到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準한다면 升20升은 常布1匹이 되고 常布1尺은 5合7勺정도가 되겠다.

畫員이 덜 받은 料米 6合은 常布 약 1尺에 해당되고 畫僧의 1升2合은 常布 약 2.1尺에 해당되므로 畫員이 價布 2分씩을 더 받았다 하여도 木手, 石手, 貫子匠보다 8分을 적게 받은 셈이며 畫僧은 料米를 적게 받은 것과 더 받은 價布와 같은 같아서 그들과 同率의 給料을 받았었던 것으로 계산이 된다.

儀軌에서는 常布(木)와 價布를 區分하고 있다. 성질이 다르고 그 가격이 달랐던 모양이다. 앞의 계산은 常布와 價布와의 관계를 모르고서는 成立될 수 없는 것이나 比較하는 한 기준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價布가 常布보다 싼 것이면 畫員과 畫僧은 木手, 石手, 貫子匠보다 적은 額數를 받은 것이고 반대로 價布값이 비싼 것이라면 다소 회부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는 畫員이나 畫僧이 建築工에서 특별히 給料을 많이 받았던 工匠이 못되고 오히려 冶匠이나 蓋匠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요지음 木造建築工에서 最古 給料를 蓋匠에게 支拂하고 있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한 價習에서 비롯된 모양이다. 丹青畫工은 요즈음도 木手보다 급료를 비슷하거나 적게 받고 있다.

各匠 1日給料比較表

	料 米	價 布
木 手	3升	1.16尺
石 手	3升	1.16尺
泥 匠	9合	0.61尺
漆 匠	2合	1.16尺
冶 匠	2升1合	1.3尺
蓋 匠	2升4合	1.4尺

六.

畫員을 建築史的인 면에서 다룬다는 일은 分外的 일일지 모르고 확실히 力不足한 分野이어서 뜻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미심적이다. 그런데로 畫員도 建築工에서 參與하였었고 그러한 한 사람이 金明國이며 이 金明國은 儲承殿工에서 丹腹部分의 代表者로 종사하였음을 指

摘하였고 그의 간략한 履歷에 한 行跡이 挿入되도록 하였다.

지금 儲承殿이 있고 거기에 當時의 丹青이 남았다면 金明國의 활달한 필치를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 建물이 불타버리고 말아서 아까운 작품을 잃게 되었다.

建築史를 理解하는 길은 여러 갈래일 것이다.

從事한 사람 하나 하나의 자취를 찾아 보는 길도 그것의 한 行程일 것이고 특별히 강력한 영향력을 造營의 흐름에 끼친 인물을 찾아내고 그 系譜를 작성하는 노력도 또 그 길의 하나일 것이다.

建築의 技術史的 考察도 중요한 그 길이며 建물이 造營될 수 있었던 當時의 社會經濟를 파헤쳐 보는 것도 建築經濟史로서의 또 한 길일 것이다.

建築經濟史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建築竣工報告書格인 各儀軌는 빼놓 수 없는 귀중한 것일 것이다.

奎章閣本으로 藏書閣本으로 상당량의 儀軌가 遺存하고 있다. 建築史 모든 分野를 커버하여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담겨져 있는 儀軌에 깊은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다.

上樑文이나 銘文 縣板 文集에 간략한 記文부터 더 상세하고 친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李朝 宮殿建築造營史나 李朝建築史를 쓰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儀軌부터 정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建築史 概說文들은 너무 經濟的인 部分을 도외시 하였다.

建築主가 집짓고 싶을 때 양식이나 문양의 높은 경지를 보이기 위하여 돈을 내었던 것은 아니었다.

建築主는 자기의 예산에 따라 필요한 空間을 원하였을 뿐이다. 建築主가 풍부한 財力이 없고 社會經濟가 구성되고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技術家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보잘 것 없는 집 밖에는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經濟社會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建物の 內容을 아는 법의 上策이 되고 종사한 사람들의 系譜를 찾아 내는 것이 中策이 되며 樣式이나 技法研究는 단지 下策에 불과한 길인 것이다. 承殿儀軌의 검토는 단 기회에 別稿를 마련하고 싶다.